https://namu.sdm.go.kr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소식지
Nature and Natural History

2025 여름호 **제85호**

서대문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

자연과 자연사

발행인 |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편집 | 학예연구팀 심예진 발행일 | 2025. 6. 23.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2길 51 전화 | (02)330-8899 팩스 | (02)330-1736

02 | 전시물 소개
- 불쾌함 너머의 진화와 적응의 기록, 파리
05 | 전문가 기고
- 선을 넘은 녀석들 : 이산화탄소
08 | 박물관 행사
10 | 교육
12 | 주민참여전시
13 | 특별전시
14 | 어린이코너
15 | 새소식
16 | 관람안내



Salon de Nature
주민참여전시<안산을 그리다> 中

박계영
「 쏟아지는 어머니의 사랑! 」
국수나무(*Stephanandra incisa*)

서대문자연사박물관
SEODAEMUN MUSEUM OF NATURAL HISTORY



전시물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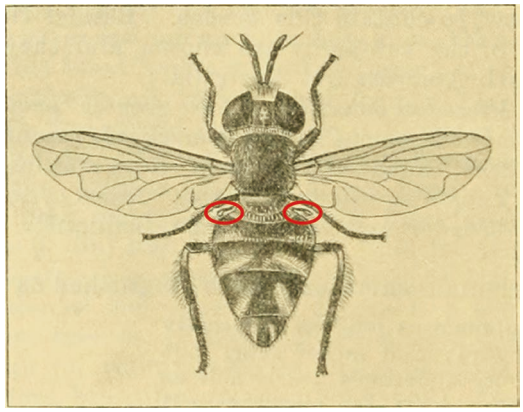
불쾌함 너머의 진화와 적응의 기록, 파리

나수미 (서울여대 곤충박사)

우리가 흔히 “파리”라고 부르는 곤충 무리는 단순히 성가시고 불쾌한 존재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작은 곤충 뒤에는 수억 년에 걸친 진화와 적응의 시간이 숨어 있다. 파리목(Diptera)은 한 쌍의 날개로 하늘을 가르며 자연의 선택과 생존의 역사를 증명해 온 곤충이다.

곤충의 조상은 약 4억 7천만 년 전 오르도비스 전기~중기에 지구상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초의 곤충은 데본기 초기에 나타난 것으로 여겨지지만, 확실한 날개 곤충 화석은 석탄기 초~중기(약 3억 2천만 년 전)에 처음 등장한다. 하늘을 날 수 있게 된 것은 곤충에게 새로운 서식지를 열어주었고, 이후 지구상의 다양한 환경에서 곤충들은 각자의 생존 전략을 발전시켰다.

파리목은 그 긴 진화의 흐름 속에서 트라이아스기 초~중기(약 2억 4천만 년 전)에 등장했다. 파리목의 가장 큰 특징은 네 개의 날개 중 뒷날개가 평형곤으로 변형되었다는 점이다. 파리목의 Diptera는 날개가 둘인 곤충(Di=two, Ptera=wing)을 의미한다. 이 작은 균형 기관 덕분에 파리목 곤충은 빠르고 정교하게 공중을 날 수 있었고, 민첩한 비행술은 그들의 생존 무기가 되었다.



▲ 그림 1. 파리의 평형곤

파리목은 오랜 진화 과정에서 다양한 생태적 역할로 분화했다. 이들은 환경에 맞춰 신체를 변화시켰으며, 곤충의 입 구조는 데본기부터 점차 다양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씹는 입과 찌르고 빨아들이는 입이 나타났고, 트라이아스기 후기와 쥐라기 초기에는 물속의 작은 먹이를 걸러 먹는 입 구조가 생겼고, 쥐라기 후반과 백악기 초기에, 곤충은 꽃의 꿀이나 수액 같은 표면의 액체를 빠는 입 구조로 진화하기 시작했다. 이는 백악기 초기에 속씨식물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다양화되면서, 곤충이 꽃에 적응한 결과이며, 곤충과 식물 사이의 공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입 구조가 점점 다양해지면서 파리목 곤충들은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되었고, 새로운 먹이에 맞춰 몸과 생활 방식이 달라지면서 종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파리목은 지구 생태계에서 빠질 수 없는 곤충 무리로 자리 잡았다. 파리목은 생태계 내에서 분해자, 수분자, 포식자, 기생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늘날 초파리, 집파리, 모기, 등에 같은 곤충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친 진화의 흐름 속에서 태어난 후손들이다.

파리목은 '적응'이라는 단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곤충이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 약 16만 종 이상이 기록되었으며, 극지방, 사막, 고산지대, 도시의 하수구까지 서식지를 가리지 않는다. 마치 지구상의 빈틈을 찾아다니듯 살아가는 그들은 빠른 번식력과 다양한 생존 전략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자리를 잡아왔다.


▲ 그림 2. 꽃등에의 형태학적 행동학적 의태

일부 파리는 벌이나 말벌을 닮는 의태(mimicry) 전략을 사용해 포식자로부터 몸을 숨긴다. 예를 들어 꽃등에과(Syrphidae)는 노란색과 검은색 줄무늬, 행동 방식까지 말벌과 비슷해 천적의 공격을 피한다. 또 어떤 파리들은 화학적 모방을 통해 다른 종의 집에 침입하여 살아간다. 이렇게 파리목 곤충들은 화학적, 행동학적, 형태학적 의태를 통해 생존 확률을 높이며, 진화적 다양성을 쌓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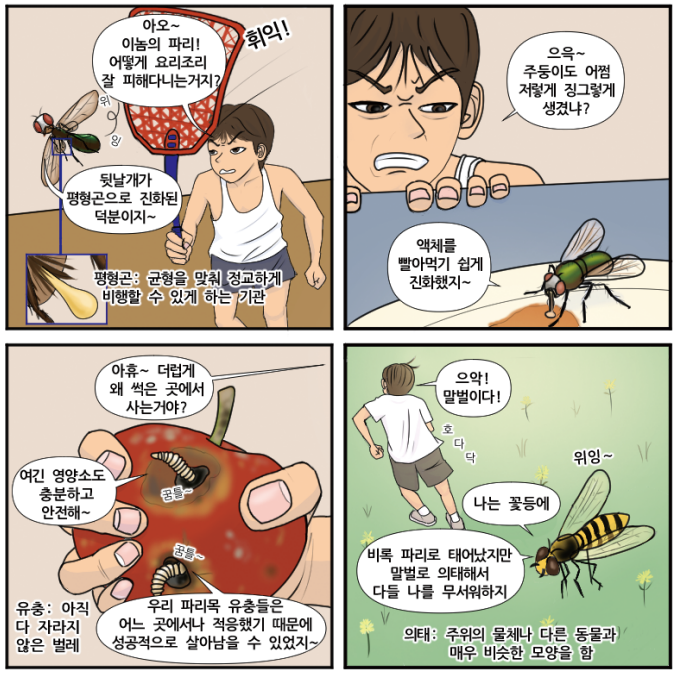
파리목의 유충은 놀라운 생존 전략을 지녔다. 파리의 유충은 썩은 나무 속, 동물의 상처, 죽은 동물의 시체, 심지어 다른 곤충의 몸속까지도 서식지로 삼는다. 이런 다양한 서식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각 유충이 경쟁과 포식, 환경적 압력 속에서 자신만의 생태적 틈새(지위; niche)를 개척해 온 결과다. 일부 유충은 숙주의 조직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하거나, 죽은 동물의 몸속에서 빠르게 번식해 자원을 독점하며, 경쟁자보다 먼저 성체로 우화 할 수 있도록 진화했다. 또한 파리는 번데기 시기에 들어서면 자신의 몸을 딱딱한 껍질로 감싸 외부 충격과 건조, 포식자로부터 보호받는 갑옷을 만든다. 이러한 적응은 오랜 시간 동안 자연선택이 작동하며 유리한 형질이 세대에 걸쳐 나타난 결과이며, 이것이 파리가 다양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비결이다.

파리목은 인간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노랑초파리(*Drosophila melanogaster*)는 100년 넘게 유전자 연구의 대표 모델 생물로 자리 잡았다. 이 작은 곤충을 통해 발생학, 유전학, 신경과학 등 수많은 분야의 기본 원리를 밝히며 여러 차례 노벨상 수상 연구에 기여했다. 반면, 인간 건강에 위협이 되는 존재들도 있다. 모기는 말라리아, 뎅기열, 일본뇌염, 지카바이러스 등 치명적인 질병을 퍼뜨리는 주요 매개체다. 빌 게이츠는 모기를 "매년 약 7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가장 치명적인 동물"로 정의하며, 모기 퇴치에 기여하는 연구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 그림 3. 흰줄숲모기(*Aedes albopictus*)

이렇게 파리목 곤충은 인간에게 지식을 주는 연구 파트너이자,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공중보건의 과제로 양면적인 존재로 남아 있다. 이처럼 파리목은 단순히 불쾌한 곤충이 아니다. 그들은 수억 년 동안 자연선택과 적응을 거듭하며, 지구 생태계

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해 온 생존의 증거물이다. 우리가 불쾌하게 여기는 그 생태조차도, 수억 년의 진화와 생존 전략이 새겨진 역사의 산물이다. 우리의 눈앞에서 손을 비비는 평범한 파리는 사실 진화의 무대에서 끊임없는 선택과 적응을 이겨낸 위대한 생존자인 것이다.



글, 그림 : 김동영

필자 소개

나수미 (서울여대 곤충박사)

서울여자대학교 생명환경공학과에서 2017년부터 질병매개 곤충, 특히 모기의 생태 및 방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2023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동물생태 관련 주제로 14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고, 현재는 국·공립기관을 중심으로 교육 강의와 콘텐츠 제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곤충 관련 도서를 집필 중이며, 곤충의 생태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내는 작업을 통해 사람들에게 익숙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곤충의 삶을 소개하고, 자연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전하고 있다.



전문가 기고

선을 넘은 녀석들: 이산화탄소

신진화 (빙하학자, 극지연구소 박사후연구원)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꾼다. 빙하 속에 과거의 대기가 포집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습관적으로 마셨던 위스키 한잔 때문이었다. 프랑스 빙하학자 클로드 로리우스(Claude Lorius)는 1965년 빙하를 시추하기 위해 남극 아델리랜드(Adélie Land)에 방문했다. 고된 활동이 끝나고, 그는 밤마다 동료들과 온 더 록 (on the rocks) 으로 위스키를 마셨다. 그날따라 위스키에 넣어 마실 얼음이 똑 떨어져 그는 얼음 대신에, 빙하에서 얼음 몇 조각 떼어다 위스키에 넣었다. 그런데 갑자기 얼음 조각에서 방울이 톡톡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마치 샴페인을 따른 것 같았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 빙하가 형성될 당시의 기체가 빙하 속에 담겨 있음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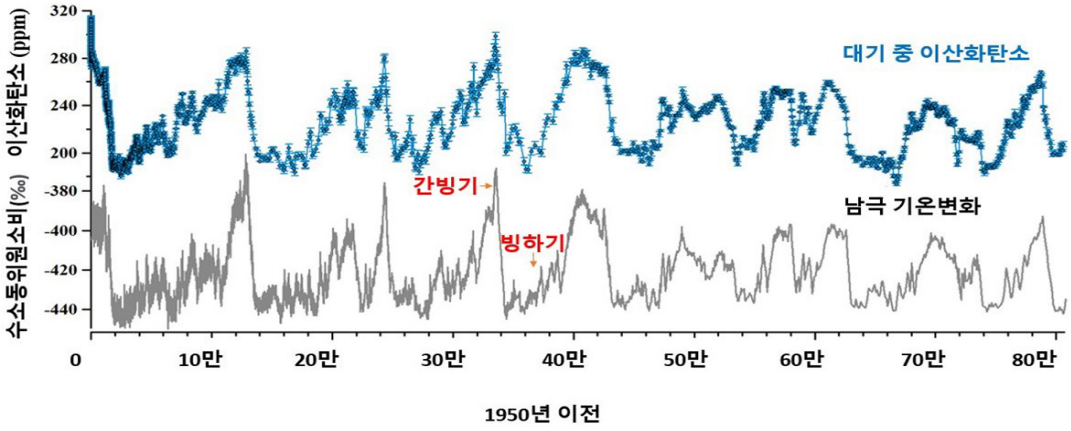
빙하가 형성될 당시의 대기가 어떻게 빙하 속에 보관되어 있었던 걸까? 눈이 내리면 최상부엔 신선한 눈이 쌓인다. 눈이 점점 쌓이면서 압력을 받아 눈이 눈도 얼음도 아닌 중간 단계인 펀(firn) 상태가 되고, 60m-110m 이하에서는 펀이 얼음 상태가 된다. 이 눈송이가 겹겹이 쌓이는 동안, 빙상의 최상부에서는 대기가 눈송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순환하다, 펀에서는 확산이라는 원리로 대기가 아래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다 약 60-110m에서 최종적으로 대기가 빙하 속에 포집 된다. 그래서 빙하에는 눈뿐만 아니라, 눈이 내릴 당시의 대기까지 함께 보관되어 있는 것이다.

고기의 뼈를 자르는 기계톱으로 빙하 코어를 아주 작게 잘라서 빙하의 표면을 보면, 평상시에 우리가 흔히 접하는 얼음과는 많이 다르다. 작은 공기 기포가 보이는데 이때 보이는 작은 공기 기포는 빙하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그 공기 방울은 눈이 쌓이고 빙하가 되는 과정 중에 포집된 과거 대기이다. 빙하 표면을 손으로 문질러 보면, 압력이 높은 공기 방울이 '타다닥' 소리를 내며 터져 나온다. 그 포집된 공기를 잘 빼내어 실험기기가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일정량을 모으면 빙하 속 공기 방울로 과거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 온실가스를 복원할 수 있다.

클로드 로리우스는 남극에서 돌아오자마자 위스키로부터 얻은 아이디어로 빙하 속에 포집된 기체를 뽑아내는 방법을 고안해 과거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많은 과학자들이 더 정밀하게 과거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복원하는데 성공해 지금까지 남극 빙하를 이용해서 과거 80만 년 동안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복원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지난 80만년 동안 평균적으로 180ppm과 280ppm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이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는 남극에서의 온도변화와 유사하다. 80 만 년 동안 약 10만 년의 긴 빙하기와 약 1만 년의 짧은 간빙기가 여덟 번 반복되는데, 이산화탄소 농도도 8번 높아졌다 낮아졌다 했다. 상대적으로 춥고 빙상이 온대 지역까지 확장된 빙하기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약 180~210ppm 정도로 낮았고, 반대로 빙하가 후퇴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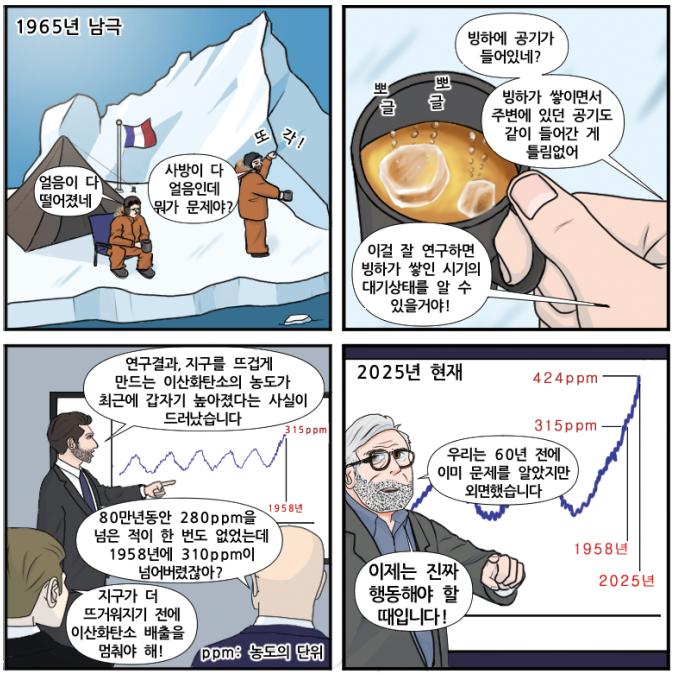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따뜻한 시기인 간빙기 기간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260-280ppm으로 높았다.



이산화탄소와 남극 온도의 연관성은 기후와 이산화탄소 농도 간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수온이 낮을수록 이산화탄소는 바다에 더 잘 녹기 때문에, 빙하기에는 심해에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저장되어 대기 중 농도가 낮아졌다. 반대로 수온이 높아지면 용해도가 떨어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다. 특히 남극해를 순환하는 차가운 심층수는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는데 남반구 편서풍이 강해질 경우 이 심층수가 용승을 일으켜 저장된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방출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해빙이 바다 표면을 덮고 있으면 해양 - 대기 간 기체 교환이 제한되어 이러한 방출이 완화된다. 또한 용승된 심층수에 풍부한 영양염은 식물 플랑크톤의 성장을 촉진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양상이 깨졌다.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직접 측정한 하와이 마우나로아관측소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2024년 한 해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는 424.6ppm였다. 이는 자연적인 한계인 280ppm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게다가 이산화탄소 농도를 처음 측정한 1958년때의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가 315ppm임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약 110ppm 높다.

남극 빙하를 이용해 복원한 과거 80만 년 동안의 이산화탄소 농도 기록은 인류활동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급격히 증가시켜 왔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문제는 이산화탄소는 대표적 온실기체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지구 평균 온도 또한 함께 상승해왔다는 점이다. 만약 우리가 지금처럼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면 지구 평균 온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높이는 것도 낮추는 것도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을 흔들어놓을 변화가 필요하다.



글, 그림 : 김동영

필자 소개

신진화 (빙하학자, 극지연구소 박사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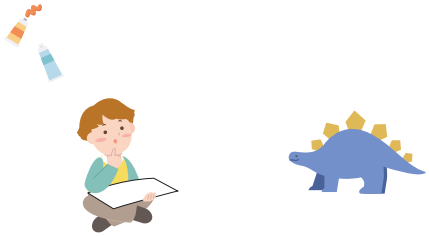
고기후와 빙하학을 연구하는 빙하학자다.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를 수석 졸업했으며, 서울대 대학원 지구환경과학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프랑스 그로노블 알프스대학과 IGE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캐나다 앨버타대학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연구했으며, 현재는 한국 극지연구소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2023년 그린란드 EastGRIP 국제 공동 심부 빙하 시추 프로젝트 현장에 한국 대표로 참가했다. 저서로는 『빙하 곁에 머물기』(2025, 글항아리)가 있다.

03 박물관 행사

5월 2025년 그림그리기 대회 후기

5월 3일 박물관에서는 어린이날 맞이 그림그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94명의 어린이들이 박물관 전시물을 주제로 자신만의 창의력을 발휘하며 그림 실력을 뽐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그림그리기 대회는 매년 어린이날(5월 5일) 전후로 개최됩니다.

- **일 시 :** 2025. 5. 3.(토) 10:00 ~ 12:00 (2시간)
- **장 소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1~3층
- **작품주제 :** 박물관 전시물을 주제로 어린이들의 상상을 더하여 그림 완성
- **참가인원 :** 초등학생 1~6학년 94명



행사사진







2025년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작









※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작 30점을 박물관 아트갤러리에 1년간 전시합니다.

7월

자원순환 플리마켓

어린이 돗자리장터 운영



우리집에 방치된 물건들이 누구에게는 꼭 필요한 **"잇템"**이 될 수 있습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는 자원 재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돗자리 장터가 열립니다.

자연사박물관 돗자리장터에서 나에게 필요한 물건을 **"득템"**하고 쓰지 않는 물건을 거래해 보세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중고물품 거래장터를 개최하여 아이들이 사용하던 물품을 직접 거래하며 경제 활동을 간접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일 정 :** 2025년 7월 중 (홈페이지 별도 공지 예정)
- **장 소 :** 박물관 1층 중앙홀
- **대 상 :** 사전 신청 어린이(초등학생 1~6학년) 판매자 15팀

7월

박물관에 나타난 공룡들!

특별 주말 이벤트 안내

레고®와 함께 떠나는 쥬라기월드 모험!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공룡 체험,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주말엔 특별한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이번 7월, 가족과 함께 꼭 한 번 들려보세요!

- **일 정 :** 7월 5일(토)-6일(일), 12일(토)-13일(일)
- **장 소 :** 자연사박물관 1층 중앙홀
- **내용 :** 현장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포토 이벤트와 럭키드로우(추첨)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8월

여름방학 어린이 마술공연



관객 참여형 마술 공연 및 풍선 아트

- **일 정 :** 2025년 8월 9일(토) (예정)
- **장 소 :** 박물관 1층 중앙홀
- **대 상 :** 당일 박물관 관람객 누구나



※ 상세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입니다.



교육

6~7월 서대문자연사박물관 × 생명다양성재단 정기강좌

- **교육대상 :** 관심 있는 누구나
- **모집일정 :** 2025. 6. 13.(금) 10시 ~
- **교육시간 :** 90분
- **수 강 료 :** 무료(박물관 입장료 별도)
- **교육내용 :** 야생 영장류학 등 2개 강좌
- **교육일정 :** 2025. 6. 20.(금) ~ 2025. 7. 18.(금)
- **장　　소 :** 1층 시청각실

※ 문의 02-330-8871

7월 엄마랑 아빠랑 책이랑 친구하기

- **교육대상 :** 5~8세 어린이를 포함한 20가족 (2020년생~2017년생)
- **교육내용 :** 미생물은 어떻게 생겼을까?
- **모집일정 :** - 우선접수(서대문구민) : 2025. 6. 17.(화) 오전 10시 ~
  - 일반접수 : 2025. 6. 19.(목) 오전 10시 ~
- **교육일정 :** 2025. 6. 28.(토)
- **교육시간 :** 60분
- **장　　소 :** 3층 북파크
- **수 강 료 :** 무료(박물관 입장료 별도)

※ 문의 02-330-8871





7월 박물관 투어

- **교육대상 :** 유치부 6세~초등6학년
- **교육내용 :** 12과목 15강좌
- **모집일정 :** 2025. 6. 16.(월) 10시 ~ 마감 시
- **교육일정 :** 2025. 7. 5.(토) ~ 7. 27.(일)
- **교육시간 :** 120분(유치부90분) [10:00~12:00, 13:00~15:00]
- **장　　소 :** 5교육실 및 전시장
- **수 강 료 :** 16,000원(1인)
  [일반 연간회원 11,000원, 연간 구민회원 10,000원]

※ 문의 02-330-88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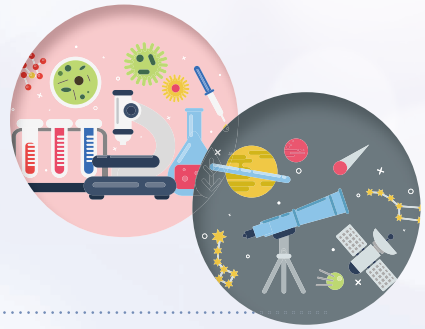


7월 과학도구 빌려주는 자연사박물관

과학도구(현미경, 망원경) 사용법을 교육한 후 관련 과학도구를 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교육대상 :**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2~4명)
- **교육내용 :** - 현미경, 작은 세상을 살펴보는 과학도구: 현미경 조작 실습 및 프레파라트 제작
  - 망원경, 밤하늘 관측 과학도구: 천체관측 기초 및 망원경 조작 실습
- **모집일정 :** 2025. 7. 7.(월) 11시 ~ 마감 시까지(예정)
- **교육일정 :** 2025. 7. 19.(토)
- **교육시간 :** 120분 [14:00~16:00 또는 19:00~21:00]
- **장　　소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미나실(2층)
- **수 강 료 :** 25,000원/가족

※ 문의 02-330-8863



7~8월 2025년 여름학기 박물관 교실 (구 자연사 배움교실)

- **교육대상 :** 유치부 6세~초등6학년
- **교육내용 :** 15과목 60강좌
- **모집일정 :**
  · 연간회원 우선접수(정원의 30%)
  2025. 6. 24.(화) 10시 ~ 6. 25.(수) 24시
  · 연간회원 및 일반회원
  2025. 6. 26.(목) 10시 ~ 수강일 2일 전
- **교육일정 :** 2025. 7. 19.(토) ~ 8. 10.(일)
- **교육시간 :** 90분(유치부90분)
  10:00~11:30 | 13:00~14:30 | 15:00~16:30
- **장　　소 :** 1~3교육실 및 전시장
- **수 강 료 :** 일반회원 16,000원(1인)
  연간회원 13,000원
  연간회원(서대문구민) 11,000원

※ 문의 02-330-8858

7~8월 과학강연 여름방학 특강 <지구를 지키는 극지탐험대>

- **교육대상 :** 초등학생 이상 누구나
- **교육내용 :** 극지연구소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요?
  더 나은 지구를 위해 일하는 극지연구소의 연구원과 만나봅시다.
- **모집일정 :** 2025. 7. 8.(화) 오전 10시~
- **교육일정 :** 2025. 7. 19.(토) ~ 2025. 8. 30.(토)
- **교육시간 :** 90분
- **장　　소 :** 1층 시청각실
- **수 강 료 :**

구분	현장강의 (박물관 입장료 포함)	온라인강의
일반	12,000원	8,000원
연간회원	10,000원	6,000원
서대문구민 연간회원	8,000원	5,000원

- 수강료 면제 : 수급자가구,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 65세 이상자(전화신청)

※ 문의 02-330-8871

05 주민참여전시



2025년 제1회 주민참여전시

『안산을 그리다』

- **기　　간** : 2025. 4. 29.(화) ~ 6. 29.(일)
- **장　　소** : 1층 중앙홀, 살롱 드 네이처(Salon de Nature)

전시설명

서대문자연사박물관 1층 중앙홀에 주민참여 전시공간 'Salon de nature(살롱 드 네이처)'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 공간은 지역 주민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을 직접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열린 전시공간입니다. 첫 번째 전시로는 서대문구민 30인이 세밀화로 그려낸 안산의 식물을 소개하는 『안산을 그리다』 전시가 개최되었습니다. 구민들이 직접 관찰하고 정성스럽게 표현한 식물 세밀화는 우리 주변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전시는 1부(4.29.~5.31.)와 2부(6.1.~6.29.)로 나뉘며, 봄·여름, 가을·겨울 식물을 계절별로 나누어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Salon de nature(살롱드네이처)'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자연을 잇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 전시문의 : 02)330-8868







자연사박물관 주민참여전시

『안산을 그리다』 홍제 카페폭포 내 순회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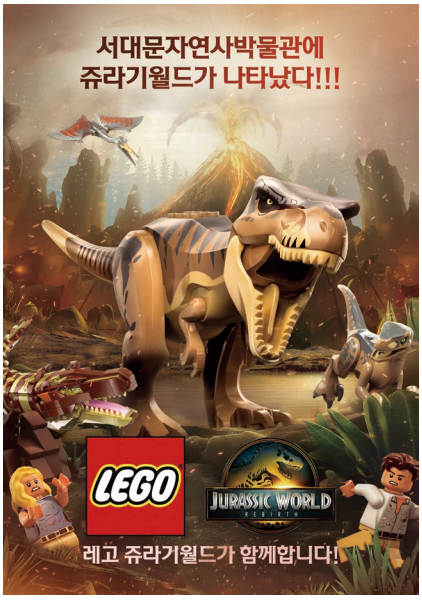
- **기　　간** : 2025. 7. 8.(화) ~ 2025. 10. 12.(일)
- **장　　소** : 홍제 카페폭포 2층

전시설명

자연사박물관 제1회 주민참여 전시에서 선보였던 서대문구민 30인의 식물 세밀화 작품이 이제 일상의 공간으로 찾아갑니다. 지역 주민들이 서대문의 대표 자연 명소이자 서대문구의 랜드마크인 '안산'에서 직접 식물을 관찰하고, 그 순간의 감정과 풍경을 정성스럽게 세밀화로 표현한 작품들을 사계절에 따라 전시합니다.

이번 순회전시는 지역 주민의 창작 활동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연과 예술, 일상이 연결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06 특별전시



레고® 쥬라기 월드가 찾아왔다!

- **기　　간 :** 2025. 7. 1.(화) ~ 2025. 7. 31.(목)
- **장　　소 :** 1층 중앙홀, 살롱 드 네이처(Salon de Nature)

전시설명

서대문자연사박물관 × 레고 쥬라기 월드 특별 전시

영화 속 장면을 생생하게 구현한 레고® 쥬라기 월드 디오라마 전시가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 상륙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랩터, 모사사우르스 등 인기 공룡들이 레고 브릭으로 정교하게 구현되어 있으며, 실험실, 탐사 차량, 관람차 등 영화 속 명장면을 연상케 하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재현되어 관람객을 공룡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또한 박물관 1층과 2층 상설 전시관에서는 실제 공룡 골격 화석도 함께 감상할 수 있어,레고로 구현된 상상 속 공룡과 과학적 고증을 바탕으로 복원된 실물 공룡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입체적이고 흥미로운 공룡 체험형 전시로 구성되었습니다.

상상과 현실, 과거와 현재가 맞닿은 생동감 넘치는 공룡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5년 제2차 특별전시

『작은 섬 아래, 큰 세상』

- **기　　간 :** 2025. 8. 2.(토) ~ 2025. 11. 2.(일)
- **장　　소 :** 1층 특별전시실

전시설명

울릉도·독도 해양생물 사진전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의 자연 속 생명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됩니다.

이번 전시는 우리 영토의 동쪽 끝에 위치한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 이들 섬 아래 숨겨진 풍부한 해양 생태계를 사진으로 조명합니다. 작고 외딴 섬처럼 보이지만, 그 수면 아래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거대한 생명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동일한 해산에서 형성된 화산섬으로, 규모는 작지만 먼저 생성된 독도가 형, 울릉도가 동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도는 오랜 세월 풍화와 침식을 겪으며 지금의 지형을 이루었고, 이는 울릉도가 먼 훗날 보여줄 경관을 미리 보여주는 자연의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두 섬은 해양 생물다양성 면에서도 높은 생태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입니다. 작은 섬 아래 숨겨진 큰 세상, 그 안에 살아 숨 쉬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23회 기획전시

『공룡, 다음 인간』 연장 안내

- **기　　간 :** ~ 2025. 8. 31.(일)
- **장　　소 :** 2층 기획전시실



어린이코너 (2025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자 인터뷰)

1~2학년부 금상 대표
홍지우 (인천서운초등학교 1학년)



그림을 소개해주세요.

나와 내 동생은 타임머신을 타고 빙하 시대로 갔어요.
원시인이 되어 매머드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밤이 오고 있어 빨리 집에 가야 하는데 아기 매머드가
더 놀고 싶다고 떼 쓰다가 엄마에게 혼이 났어요. 하지만 아기 매머드는
아빠 엄마랑 즐겁게 놀았던 오늘 하루가 너무 즐거웠답니다.



2025년 어린이날 기념 그림그리기 대회에 참여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저는 그림 그리기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그림대회를 기다렸어요.
매머드 그림을 그릴 때는 즐겁고 매우 설레였어요. 내년에도 또 가고 싶어요.

3~4학년부 금상 대표
이시안(서울중대부속초등학교 3학년)



그림을 소개해주세요.

옛날에 살았던 바다 공룡, 생물들과 함께 수영하면서
바다를 탐험하면 정말 멋지고, 환상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림으로 그렸어요. 제 옆에 있는 목이
긴 바 다 공룡은 에라스모사우르스이고, 조개같이 생긴 것은 암모나이트예요.
또 다양한 바다 생물들과 땅 위에 식물들도 박물관 전시품들을 자세히 관찰해보고 그렸어요.



2025년 어린이날 기념 그림그리기 대회에 참여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그림그리기 대회 너무 재미있었어요.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
자주 오지만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을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금상을 받아서 너무 기쁘고 뿌듯해요. 내년에도 또 참여하고 싶어요.

5~6학년부 금상 대표
김소율(인천미송초등학교 5학년)



그림을 소개해주세요.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 제가 좋아하는
트리케라톱스 화석을 보며, '정말 이 공룡을 직접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증강현실을 통해 티라노사우르스를 만나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2025년 어린이날 기념 그림그리기 대회에 참여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박물관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니,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특히 어린이날, 트리케라톱스 화석 옆에서 그림을 그린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08 새소식

2025년 교육시설 개선공사 안내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개선 공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공사기간 :** 2025년 8월 중순 ~ 10월 초순
- **공사범위 :** 교육실 3개소 및 인접 공간

이번 공사를 통해 공간을 재정비하고 교육기자재를 교체하며, 특히 환기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여 더욱더 위생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더욱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사 기간 중 일부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제한되거나,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육생 및 관람객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욱 나아진 환경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토종씨앗도서관 운영



- **6월 : 가랑파, 7월 : 담양배추, 8월 : 진안무**
- **응모기간 :** 매월 1일부터 마지막 주 월요일까지
- **추 첨 일 :**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추첨영상 유튜브 업로드 및 당첨자 개별 연락)
- **추첨인원 :** 월별 20명(서대문구민 6명 우선 추첨)
  (씨앗과 함께 재배 및 채종 방법 동봉하여 우편발송)
- **반납방법 :** 씨앗을 심어 기른 후 채종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반납

※ 문의 : 02-330-8858

당첨자 확인 ▶

※ 박물관 1층 토종씨앗도서관에 응모해주세요. 매월 20명을 추첨하여 토종씨앗을 대출해드립니다.
씨앗을 잘 키워 채종하여 반납해주시면 씨앗도서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새로운 캐릭터를 소개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씨로
친구들을 잘 도와줘요!
← '토비'

'칸토' →
궁금한게 생기면
뭐든 알려주는 설명 박사!



더 자세한 내용은
QR을 확인해 주세요!
인스타그램



관람안내

관람시간
- 3 ~ 10월(하절기) 평일 9:00 ~ 18:00 공휴일 9:00 ~ 19:00
- 11 ~ 2월(동절기) 평일 9:00 ~ 17:00 공휴일 9:00 ~ 18:00

입장 및 매표마감 : 폐관 1시간 전

휴관안내
- 1월1일, 설날당일, 추석당일,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휴관

관람안내
- 개인관람 : 예약 없음, 관람인원 및 시간제한 없음
- 단체관람 : 예약 필요(namu.sdm.go.kr 홈페이지-안내-단체관람안내)
- 전시장 음료반입 금지, 나무홀 취식가능(배달음식 금지)
- 무료관람 대상자 : 홈페이지 참고(namu.sdm.go.kr 홈페이지-안내-관람료)

전시해설안내
- 도슨트 전시해설 : 화 · 수 : 오전11시 / 목 · 금 : 오후2시
  주말 · 공휴일 : 오전 11시, 오후 2시
- 어린이도슨트 전시해설 : 주말, 공휴일, 방학 중 비정기적 운영

('홈페이지-관람안내-박물관일정표'에 보시면 어린이도슨트의 활동시간과 활동코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회원제
- 연간회원에 가입하시면 무료입장, 교육프로그램 할인 등 혜택이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가입하세요(namu.sdm.go.kr 홈페이지-안내-연간회원).

카카오톡채널안내
- 카카오톡에서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추가하고 소식을 받아보세요.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카카오톡

주차안내
- 주차장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및 공휴일 박물관 주차장 만차 시 연북중학교 주차장 이용 가능합니다.
(연북중학교 주차장 이용 가능 시간 : 주말 및 공휴일 11:30 ~ 19:00)

대중교통안내
- 지하철 신촌역(2호선) 4번 출구 - 마을버스 서대문 03번 환승
- 지하철 홍제역(3호선) 4번 출구 - 버스 7738번 환승
- 버스 110번, 163번, 7017번, 7720번, 7738번
- 서대문 명소 순환 셔틀버스

(문의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02-360-8685)

순환 셔틀버스 시간표

주소 문의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32길 51(연희동)
- 대표전화 : 02-330-8899

서대문자연사박물관
SEODAEMUN MUSEUM OF NATURAL HISTORY